

다름과 닮음을 인정하는 만남의 장 <만남, 그 의미>

김언정 | 어울림미술관 큐레이터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전 <만남, 그 의미>는 다양한 개개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다. 즉, 장애우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개념으로 서로 다름과 닮음을 인정하는 만남의 장이었다. 이러한 전시를 계기로 장애우들의 예술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

Communication

지난해 고양시는 문화예술 공간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집결시키고자 고양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의욕에 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걸음으로 작년 9월 대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덕양어울림누리를 개관하였으며 이어 2007년 상반기에는 일산아람누리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최근 장애인의 달에 맞춰 특별기획전을 연 덕양어울림누리의 어울림미술관은 주거생활과 초·중등교육의 중심도시라는 서울근교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로 체험을 통한 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예술적 언어로 형상화된 만남

이번에 어울림미술관이 장애우들과 함께 만들어낸 <만남, 그 의미> (4. 9~28 덕양어울림누리 어울림미술관)는 다양한 개개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서로간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그 뜻을 둔 전시였다. '장애'를 극복해야 할 어려움 혹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애우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개념으로 상호 다름과 닮음을 인정하는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우특히 이번 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장애우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활동이 두드러진 고양시의 지역적 특징



기성작가 작품 앞에 장애우 작품을 전시한 제2전시장 전경

을 살리고, 장애우와 비장애인 사이의 만남을 예술적 언어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사회적 의의와 예술적 의도를 동시에 완성시키고 있다. 또한 다른 장애에 비해 더 직접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정신지체 장애우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그리고 그들의 특별하고도 깊은 사랑을 비장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만남, 그 의미>는 무엇보다 예술적 만남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성작가들과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함께 출



장애우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예술을 체험하고 있는 제1전시장 전경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 · 장애우 김동우 작품 청자토 청자유

160×160×185mm 2005

오른쪽 · 장애우 박민선 작품 재유 백매트유

120×120×85mm 2005

아래 · 권석만 <대화> 대리석 가변적 크기 1994

품하고, 서로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전시공간을 따뜻한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먼저 전시공간의 배치이다. 기성작가의 회화작품 앞에 장애우가 만든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는 등 기성작가 40여 명의 작품과 장애우 30여 명의 작품을 두 전시장에 서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기성작가의 작품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찾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작품이 주가 되도록 선별하였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영역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만남을 위한 다양한 교감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제1, 2전시장을 연결하는 통로에는 정신지체 장애우와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사연이 실린 글이나 시를 부착하여 전시의 본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며, 제2전시장에는 자유롭게 동화책을 읽을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아 부모와 함께 전시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우 관련 동화를 읽음으로써 마음속의 벽을 허물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의 작품인 도자기를 사용한 찾집을 운영하여 전시장을 방문한 이들이 차를 마실 때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장애우들이 만든 도자기를 선물하여 관람객들이 장애우의 예술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였다.

장애우 관련 전시의 실재적 문제

흔히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장애우 관련, 특히 장애우와 함께하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정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애우를 앞세운 전시나 행사의 초기 단계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첫째는 장애우들 자체가 이러한 전시나 행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인데, 비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기획되기 일췌인 전시성 행사에 넌더리가 난 그들에게 전시의 본 뜻을 쉽게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내기란 생각처럼 용이하지가 않다.

둘째는 그 가족들과 주위의 우려이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는 의사결정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가족들과 재활교사 및 자원봉사 선생님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들이 더욱 예민하고 복잡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셋째는 전시 구성상의 어려움이다. 대체로 정신지체 장애우의 작품에 있어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도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번 전시처럼 도자기라는 매체의 경우, 교사가 전반적인 틀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고 장애우들이 그 위에 간단한 그리기와 쌓기 또는 붙이기 등을 통해 작품을 마무리하면 다시 교사들이 그것을 가마에 구워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작품들은 예술적 완성도의 일반적인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특수한 작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 전시에 대한 기대치를 가



진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예술적 아우라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덧붙여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작품의 고가판매를 지향하는 상업 화랑에서 장애인 관련 전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시와 관련한 실재적인 문제 외에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비장애인들의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는 흔히 비슷한 모습을 지닌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 세계

로부터 도드라지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반면에 그 세계와 멀어지거나 자신과 다른 존재를 대할 때면 불편함과 경계심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엔 묘한 이중성과 불편함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다르게 이해하는 마음의 거리감 때문이다. 장애우들은 쉽게 말해 비장애인들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존재



왼쪽 · 장애우 최은희 작품 청자토 천목유 105×105×185mm 2005
오른쪽 · 손창귀 <REOPEN> 석기질 점토 100×100cm 2005



들이다. 이러한 심적 거리감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서는 한 치의 거리도 좁힐 수가 없다.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그 거리가 좁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편리한 착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우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위대한 장애우들의 이야기나 최근의 영화 <말아톤>에 처처럼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장애우의 상대자인 우리 비장애인들은 장애우를 도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 그들이 힘들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가, 또 우리는 왜 그들을 다르다고 느끼며 측은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물론 장애우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여길 수는 없다. 단지 아이들이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우에게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각자의 특성, 곧 장애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 그

것이 우선이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지도 모른다. 장애우들은 비장애인들과의 다름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껴야 하며 그 소외의 쓸쓸함이 장애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장애인의 달 4월이 되면 장애인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린다. 갈수록 그 종류와 행사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들과의 소통 문제에 초점을 둔 기획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가설 수 있는 문화공간은 아직 장애우들에게 문턱 높은 공간이다. 이러한 전시를 계기로 장애우들의 예술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더불어 장애우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술체험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더욱더 다채롭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최고의 문화예술 서비스와
사랑티켓 정보를 만나다
www.ARTSBANK.or.kr

21세기 문화의 꽃을 함께 가꾸는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이 되세요**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 제도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국민카드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이 되시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드리는 최고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열어 보세요 -
사랑티켓 문화사랑 홈페이지

www.ARTSBANK.or.kr

♥ 공연관람 종합할인권 사랑티켓 구입

※ 대상 공연마다 3,000 ~ 5,000원 할인

♥ 인터넷 실시간으로 각종 공연 예약

♥ 다양한 할인 혜택

- 문예진흥원예술극장의 기획공연과 지정대관공연 관람 10%~20%
-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문예진흥원의 예술강좌프로그램 참여 10%
- 문예진흥원 예술자료관 회원 가입 50%

♥ 기타 각종 문화예술 이벤트 참여

- ※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 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연 10만 원 이상 사용시)
- ※ **사랑티켓 문화사랑 회원** 카드 사용 금액의 0.2%는
문예진흥기금으로 환원되어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THE KOREAN CULTURE & ARTS FOUNDATION